

共 ZONE

공존

AUTUMN THEME NEW KOREA-HOLIC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한국을 찾는 체류 외국인!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이들이
바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입니다.



집 밥의 반전

A Twist in the Home-cooked Meal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인데요, 저도 타지에 나와 생활을 하다 보니 그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 그리고 한국 식탁만의 자랑거리인 넉넉하고 푸짐한 반찬까지! 한 상 푸짐하게 먹고 나면 포만 감에 기분까지 좋아지죠. 그런데, 한국의 집 밥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랄만한 집밥의 반전 이야기, 저와 함께 알아 보실래요?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 매일 학생식당이나 기숙사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집에서 해먹는 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인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법 가까워진 친구는 저를 집으로 초대하였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이 가득 들어간 따뜻한 밥과 반찬들을 보니 저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요리는 제 생각보다 더욱 맛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사람이 끓인 김치찌개는 다르네. 라면만 끓일 줄 안다고 하더니, 너무 맛있어! 대체 어떻게 끓이는 거야?”

칭찬을 하며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물어보니 친구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료만 넣고 끓이면 돼. 맛있게 먹어, 왕혜.”

요리도 잘 하면서 겸손하기까지 한 친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유쾌한 식사가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은 마음 에 고마웠던 저는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주방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신기했던 저는 주방 곳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가스레인지 옆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뜯어져 있는 라면 스프였어요! 요리에 서툰 친구가 김치찌개에 라면 스프를 넣은 것이죠.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른다던 친구가 끓여준 김치찌개의 비밀을 알아버렸지만, 저에게는 한국에서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가 됐어요. 그때 제가 먹은 밥에는 저에 대한 친구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It has already been a year since I left home and came to Korea. Although I find Korean food highly enjoyable, I was beginning to miss home-cooked meals in my home country. Then I got to know a Korean friend through a school project that I participated by chance. This Korean friend and I became quite close, and he invited me to his house for dinner. He personally cooked and served kimchi stew and stir-fried spicy pork with vegetables. Being served with freshly cooked rice and dishes, with great deal of sincerity, my appetite was immensely aroused. The food tasted much better than I had expected.

“Kimchi stew made by Korean is definitively different. You told me, you only knew how to cook instant noodle but this tastes great! What is your secret? ”With this praise for his wonderful cooking, I asked him the secret of his cooking. He bashfully responded, “You simply need to put the ingredients and brew them. Just enjoy the food.”

I was so impressed by my friend who is not only able to cook well but also very modest. After having a pleasant meal, I went to the kitchen to help my friend with dishwashing out of my gratitude for the wonderful meal he served. As it was the first time I personally entered a kitchen in a house in Korea, everything in the kitchen was interesting and marvelous. Then, I found something odd next to the gas range. It was an opened and emptied soup base satchel for the instant noodle! My friend, added the soup base for instant noodle into the kimchi stew. Although I discovered the secret of the wonderful taste of kimchi stew that my friend who only knew how to cook instant noodle, made for me, it became the best tasting kimchi stew that I had in Korea because it contained love and warmth of heart he had for me.



Seoulism Written by 왕혜(중국) |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왕혜 씨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한국에서는 항상 재미있고 신기한 일을 발견할 수 있어 즐겁게 유학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그녀는 서울리즘 4기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초대합니다

● 〈共ZONE〉 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난 10월 4일 폐막식을 끝으로 세계인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아대회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나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풍광을 보기 위해 또는 한류의 본 고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매해 1,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의 정을 느끼고, 전통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현대 문화를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문, 얼굴인식 등을 통한 신속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승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전자비자제도 이용확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무한 감동의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 부근

Invitation to
vibrant
Korea

● Greetings to all readers!
The 2014 Incheon Asian Games, the global festival for all, successfully ended with its grand finale on October 4. It w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new Korea's great reputation in the world as we now prepare to host another renowned international festival -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o take part in such global events held in Korea and to see several thousand-year-old cultural heritage and gorgeous natural scenery, or to make special memories in the home of Korean wave Hallyu, over 10million foreigners are visiting Korea every year. Korea Immigration Service is channeling its all efforts to ensure that foreign tourists can feel the special warmth of Koreans and experience Korea's modern culture that embraces tradition. Korea Immigration Service is welcoming foreign tourists as an 'invisible hand' by providing convenient and speedy Smart Entry Service through biometrics while offering no-visa entry for transit tourists and expanding e-visa system. We will continue to provide impressive and unforgettable immigration service to the foreigners visiting Korea.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Han Moo-geun



2014 AUTUMN No.35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CONTENTS

- 02 IT'S SEOULISM 집 밥의 반전
- 04 EDITOR'S MESSAGE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초대합니다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한국의 새로운 매력에 빠진 그대, 외국인 관광객
- 08 THEME SITE 관광 및 체류 외국인을 위한 공간 소개
- 10 THEME GUIDE 한국에만 있는 특별 출입국 서비스
- 14 THEME INTERVIEW 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 줄리안&장위안 씨
-
- 18 한글틱움 교실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
- 20 미션! 파서블 조나영 씨의 한복 입기
- 22 나의 취업성공기 에스이웍스 보우디 베이커 씨
- 24 학교 다녀왔습니다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학교 인천한누리학교
- 26 K-Food 특공대 송편 만들기 체험
-
- 30 정책특집 '한국살이'의 어려움, 이렇게 해결하세요!
- 34 출입국 25시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슈퍼맨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38 우리동네 보물탐방 부산의 '갈매길'을 걷다
- 44 다정다감 그대 친절함 서비스, 넉넉한 마음
- 46 전문가 기고 외국인 관광객과 출입국 관리
- 48 출입국 NEWS 3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출입국 Q&A 외국인 관광객 관련 궁금증 해결
- 51 BLUE POST 독자가 보낸 편지

〈共ZONE〉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계간 〈共ZONE〉 2014 가을호 통권 제35호 비매품 |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4년 9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Fax 02-2110-0372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기획 및 디자인 (주)더세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COVER STORY

서로를 이해하는 힘!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포근한 어느 날, 한국에 처음 왔을 때처럼 설렌다는 줄리안(벨기에) 씨와 장위안(중국)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는 이들.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힘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SPECIAL*
THEME



NEW KOREA HOLIC!



한국의 새로운 매력에 빠진 그대, 외국인 관광객

전 세계인들이 김치와 불고기, 한복, 그리고 붉은 악마로 기억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한류드라마, K-pop, IT기술 등 새로운 한국문화에 매료된 세계인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共ZONE>에서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新) 한국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소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한국에서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출입국, 체류 정책을 두루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매력에 매료되어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줄리안과 장위안 씨를 만나 그들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共ZONE>이 함께 탐구해 봅니다.

THEME SITE 관광 및 체류 외국인을 위한 공간 소개 | **THEME GUIDE** 특별 출입국 서비스

THEME INTERVIEW 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 줄리안&장위안 씨

한류 핫스팟, 새로운 한국을 만나다!

관광객을 위한 공간



강남관광정보센터

Gangnam Tourist Information Center

강남관광정보센터에서는 강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방문 열기에 부응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관광 안내 및 통역 서비스, 의료관광 상담, 환전소 외에도 자유여행객을 위한 종합서비스(수화물 보관, 교통 카드 판매 등)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류 체험이 가능한 2층에서는 한류스타들의 미공개 영상 감상 및 스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체험, 포토존 등이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의 목적에 맞는 유용한 관광 정보와 한류 체험으로 맞춤형 관광이 가능하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 **홈페이지** kr.tour.gangnam.go.kr

Gangnam Tourist Information Center is providing tourism guidance services for the tourists. In particular, the 2nd floor of the Center offers a wide range of Hanryu experiences including viewing of previously unreleased video clips and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Hanryu stars as well as the Photo Zone where visitors can take photographs with the life-size cutout images of the stars.



홀로그램 공연장 클라이브

Hologram Performance Hall, K-Live

세계 최초의 K-pop 홀로그램 공연장 클라이브(Klive)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K-pop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색다른 체험을 선사한다. 다양한 체험과 함께 직접 스타의 콘서트를 온 것 같은 현장감은 덤. AR쇼, 시크릿 윈도우, 스타 라운지와 같은 어트랙션을 만들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시간대에 맞추어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으니 현장 매표소, 혹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매는 필수. 한국을 대표하는 K-pop 가수들의 공연과 첨단 기술인 홀로그램이 만난 새로운 볼거리를 즐겨보자.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64 롯데피트인 9F **홈페이지** www.klive.co.kr

Performance hall that grafted the 3-D technologies of Korea onto the performances of the Hanryu stars. Added bonus of the sense of realism of being in actual concert by the Hanryu stars along with a diverse range of experiences. You will be able to view the performances of extensive range of singers for each time slots but reservation in advance is essential.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공간



언어교환 카페

Language Exchange Café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국제 소셜클럽으로 2004년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강남과 홍대 등에서 열리는 언어교환 모임. 친근한 분위기에서 한국인과 재한 외국인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게임도 즐기며 자유롭게 서로의 언어를 연습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국적의 참가자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언어교환 사이트(www.seoulanguageexchange.com)에 접속하면 자세한 스케줄과 모임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소셜클럽 friendsinkorea.com

‘Friends in Korea’ is the oldest and largest international social club in Korea. Organize language exchange meetings in coffee shops every Wednesday, Saturday and Sunday in Gangnam and Hongdae. Koreans and expats practice languages together in a fun and friendly environment. People have casual conversations, study languages together, and play games together. For more information and schedule updates, please visit Language Exchange Site (www.SeoulLanguageExchange.com).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

Yeongdeungpo Global Village Center

영등포를 포함해 구로, 동작, 관악 등 서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곳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7개 국어 상담사업, 한국어·컴퓨터·운전면허 등 교육사업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했으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시설(치과, 내과 등) 또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홈페이지** global.seoul.go.kr/yeongdeungpo

Venue for provision of systematic and integrated One-Stop services in order for the foreigners and married immigrants in the district to better adapt to their lives in Korea. Consultations in 7 languages, educational classes for Korean language, computer and driver's license as well as venue for communal interaction are available. Moreover, fre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dental and internal medicine departments) can also be used by foreigners residing in the district.departments) can also be used by foreigners residing in the district.

Special Immigration Service Only in Korea

한국에만 있는 특별 출입국 서비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에서 쌓은 추억 위에 감동과 만족도를 높여준 일등공신은? 한국의 처음과 마지막 인상을 심어주는 출입국이 아닐까.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화된 출입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관광을 계획 중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꼭 필요한 특별 출입국 서비스를 한자리에 모아봤다.

What is the No. 1 contributor to enhancing the good impression and satisfaction of foreign tourists in addition to their great memories in Korea? That must be immigration service which determines the first and last impression of Korea.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implemented specialized immigration policies to ensure comfortable stay of foreign tourists in Korea. Following programs are special immigration service essential to foreign tourists who are planning on traveling to Korea.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절차는 비행으로 인해 생긴 피로를 덜어주고, 여행의 설렘을 더해준다. 연간 5천여만 명의 출입국을 담당하는 한국의 출입국 심사대는 그래서 오늘도 분주하다. 2014 인천아시아게임 등과 같은 국제행사 유치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출입국 서비스를 항시 운영하고 있다.

Expedited and convenient immigration procedures can reduce traveler's fatigue from flight and increase the excitement of traveling. That is why the immigration checkpoints in Korea in charge of the entry and departure of approximately 50 million people are so busy. Korea Immigration Service is providing special immigration service for foreign tourists at all times in preparation for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 tourists owing to the host of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and the Korean wave.

01 관광도 1+1이 좋다!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

유네스코가 지정한 '천국의 섬', 제주도와 서울, 모두 방문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제주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자. 인천, 김해, 양양, 청주, 무안, 대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주도로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관광가능지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관람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이 9월 15일부터 확대 실시됨에 따라 한국 내륙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2시간(3일)에서 120시간(5일)으로 늘었다. 또한 제주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은 전담여행사의 관광상품을 이용하여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 공항 인근지역과 수도권, 제주도를 패키지 상품으로 연계시 총 15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다.

각국의 공항 환승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짧은 시간동안 관광이 가능하다. 한국의 일반환승관광무비자프로그램은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관광객에 대해 72시간 이내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관광상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일반환승관광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인천공항 입국장 환승관광센터에 신청하면 환승안내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일반환승관광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01 One visit, two trips with No-Visa Entry Policy for Foreigners in Transit

If you have foreign friends who hope to go to both Jeju island, the heavenly island designated as the World Natural Heritage Center by UNESCO, and Seoul, you should recommend 'No-Visa Entry Policy for Foreigners in Transit to Jeju'. It is a policy to help foreign tourists who enter Korea through Incheon, Gimhae, Yangyang, Cheongju, Muan and Daegu international airports and transit to Jeju Island stay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and go sightseeing with no-visa in the region where they are allowed to travel around transit airports. It was implemented since May 1, 2013.

In particular, as this policy has been expanded since September 15 to vitalize the 17th Asian Games Incheon and attract foreign tourists, the period of stay has also been extended from the previous 72 hours (3 days) to 120 hours (5 days). No-Visa Entry Policy for Foreigners in Transit to Jeju uses tour programs of a tour agency in charge and allows tourists to stay in Korea and travel for 15 days with Tourism & Transit (B-2) visa through a tour package that includes touring of the area around the

제주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 관광가능 지역

지역별 공항 입국자	관광가능지역
인천공항 입국자	서울, 인천, 경기
청주공항 입국자	충북권, 수도권
양양공항 입국자	강원권, 수도권
대구공항 입국자	영남권, 수도권
김해공항 입국자	영남권, 수도권
무안공항 입국자	호남권, 수도권

개정 전
72시간(3일)

개정 후
120시간(5일)
※ 제주도 포함 총 체류기간 : 15일

※ 기존 제3국 여행 통과여객 → 현행 유지(B-2, 30일)

※ 제주도 무비자입국 불허국가 1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airport of entry, the metropolitan area and Jeju Island.

No-Visa Entry Policy for Foreigners in Transit offers tour programs that enable tourists transiting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go sightseeing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for less than 72 hours. Tourists who want to use No-Visa Entry Policy for Foreigners in Transit run by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can use the program with the assistance of a transit guide after applying for the program at the transit tourism center at the arrival area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02 출입국부터 특별 대우! 출입국우대카드 & 한국방문 우대카드

법무부는 사회 기여도가 높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2인까지 국제공항의 전용 출입문과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현재 기업투자자격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법무부), 모범납세자(국세청), 독립유공자(국가보훈처) 등 10개 기관에서 선정한 총 3만 3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에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한 경우) 또는 동반 2인까지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지 통역 서비스, 관광시설과 면세점 등을 이용할 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02 Preferential Treatments upon arrival! Immigration Priority Card & Korea Priority Card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s the Immigration Priority Card to the individuals or groups who have highly contributed to the society in order to provide more convenient immigration service. The card holders and two accompanying persons can use exclusive gates and immigration priority lane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 card is vali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and currently a total of 30,030 people selected by 10 institutions such as Corporate Investment (D-8) alien registration card holders (Ministry of Justice), model taxpayers (National Tax Servic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re using the servic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s the Korea Priority Card to excellent foreigners (individuals or groups) who create high added values. Foreigners with the Korea Priority Card can use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when they have registered their fingerprints and facial images in advance at the registration cent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or the card holders as well as two accompanying persons can use immigration priority lanes. Other special services such as interpretation service in destinations and additional services at tourist facilities and duty-free shops are also provided



03 크루즈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관광상륙허가제도

하늘길이 활짝 열린 만큼 바다길을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서비스도 한층 편리해졌다. 한국과 외국 해상을 3개국 이상 순회하여 운항하는 2만 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이라면 개별 심사 없이도 선박 정박 중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수업자의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운수업자가 승객 사진 및 승객 명부를 입항 24시간 전 또는 출항 후 20분까지 입항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에서는 입국 규제자 승선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운수

업자에게 관광상륙허가서 발급한다. 그러나 관광상륙허가제 조건을 갖춘 승객일지라도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입국심사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한 승객은 2012년(6월~12월) 14만 1220명에서 2013년 43만 947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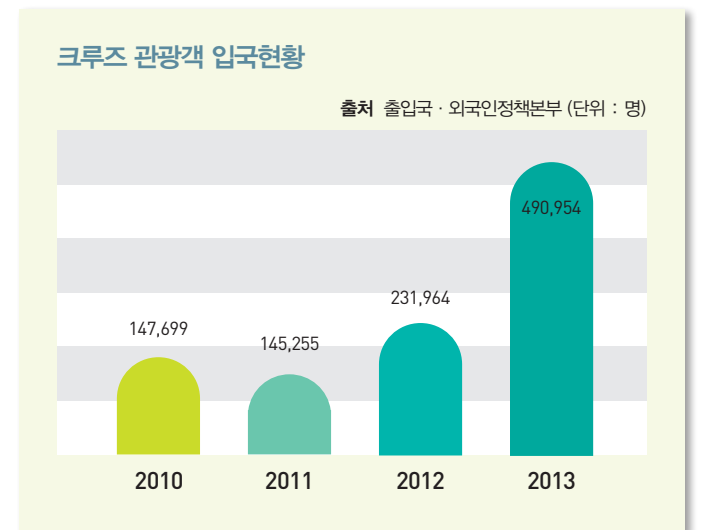
03 Customized Service for Cruise Tourists! Landing Permission for Tourism

The foreign tourists travelling to Korea via sea can now receive convenient service just as the tourists visiting Korea via air do. Any foreign passenger travelling on a cruise vessel that is over 20,000 tonnage and sails through ports of call in more than 3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 now get entry permit to stay in Korea for three days during the lay days of the vessel without separate immigration inspection.

The passengers can do so by using Landing Permission for Tourism scheme which was introduced in 2012. To use this scheme, the passengers need their cruise ship carrier to apply for the permit in advance. The carrier should submit application with the list and photos of passengers to the immigration

office at the port of entry either 24hours prior to entry or within 20minutes after departure.

The immigration office will check whether there is any passenger with travel ban on board before granting the landing permit to the carrier. The entry will not be permitted for those who have not met the immigration inspection requirements such as record of violating Immigration Control Law even if they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Landing Permission for Tourism. 🇰🇷



VISA NEWS

B-2 비자 확인 제주도에서 출국할 때, SES 이용하세요!

지난해 5월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 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SES)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17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 얼굴, 지문, 여권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SE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정을 통해 사전 등록 절차 없이도 SE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Smart Entry Service for departing from Jeju Island!

Smart Entry Service, the speedy and convenient auto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became available to the foreigners entering Jeju Island from May 13. In the past, Smart Entry Service was only available to the Korean and foreign nationals over the age of 17 who have registered their face, fingerprint, and passport information in advance, but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 has simplified the procedure to enable foreigners to use the service without pre-registration

从济州岛离境时，请您使用SES！

从2013年5月13日起，凡是通过济州岛入境韩国的外国人离境时，可使用便捷的自动出入境审查服务(SES)。目前，17岁以上的韩国国民和外国人使用SES服务前需登记脸部、指纹和护照信息，而现在作出程序简化修改，无需事先登记就可使用SES服务。

문화의 벽을 넘은 비정상 콤비

우린 한국에 푹 빠졌어요

줄리안
Julian Quintart,
벨기에장위안
張玉安, 중국

여기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후 한국을 무대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출신 국가도, 생김새도, 생각도 다르지만 한국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장위안(張玉安, 중국) 씨와 줄리안(Julian Quintart, 벨기에) 씨의 미소는 형제처럼 닮아있다.

주말이 끝난 뒤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바로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TV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온 장위안(張玉安) 씨와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Julian Quintart)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장위안 |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다들 착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좋았죠. 중국에서 북경TV의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2009년에 한국으로 여행을 온 후, 2010년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하며 직접 체험한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밝음에 끌린 것이죠.

줄리안 | 어렸을 때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주인공인 소년이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막연히 크면 아시아를 여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한국에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보니 한국에 처음 온 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한국

한국이 좋아 한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그러다 보니 <비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국생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요즘이지만, 그들에게도 고향과는 너무 다른 문화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있었다.

장위안 | 한국에 정착할 때 함께 대학을 다니며 사귀었던 한국인 친구들이 비자부터 정착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사용이 자유롭지 않으니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와 음식 등도 힘든 부분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여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가 익숙해 지면서 점차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줄리안 | 한국으로 온 뒤 몇 달 간은 한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지냈는데, 그때 처음 한국의 '정(情)'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모두 저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곤 했죠. 제 고향인 벨기에와는 많은 것이 달라 낯설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위안 | 줄리안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일단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든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비정상회담>에 출연하게 된 것도, 친구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 중국인 멤버를 찾고 있었는데, 저를 추천한 거죠. 아마 그날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비정상회담>에 중국인 멤버는 없었을 거예요. 운명이죠.

다름을 인정하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사이이지만, 어느 누구보다 가까워졌다는 둘은 다른 멤버들과 녹화가 없는 날에도 만나곤 한다. 여러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데 마치 카메라만 없는 <비정상회담> 녹화의 연장선상 같다고. 인기를 실감하느냐는 질문에 열심히 하는 만큼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하게 된다고 말한다.

줄리안 | 사실 저와 위안 형은 삶의 가치관이 정말 반대라고 할 만큼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처음 위안 형을 만났을 때는 차가워 보이고 말도 잘 하지 않아 거리를 느꼈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줄리안 Julian Quintart

줄리안 씨는 벨기에 출생으로, 2004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후 한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춤과 음악 등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이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그는 현재 음악 감독이자 클럽 DJ로 활동 중이다.

장위안 張玉安

장위안 씨는 중국 출신으로, 2009년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2010년 한국에 정착하였다. 중국 북경TV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그는 현재 한국에서 라디오와 학원 등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나
어느 누구보다 가까워진 이들은
녹화가 없는 날에도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마치 카메라만 없는
〈비정상회담〉 같다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의 고향인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토론이 자유로워요.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지요.

장위안 | 처음 녹화를 시작했을 때에는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지를 몰랐거든요. 이제는 모두가 친해져서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타향 살이를 하는 어려움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고향인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주는 것에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줄리안 | 〈비정상회담〉에서는 무조건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한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한국에 대하여 말하다 보니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국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출연하는 저희도,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도 함께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좋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장위안 |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짧은 시간에 가장 커다란 발전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변화가 빠른 반면 그에 따른 나쁜 점도 있지요. 한

국의 현실에 대해 전 세계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각 나라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저희가 조금씩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전유성'이에요!

이제는 한국이 '마음의 고향'이 되어 고향에 가셔도 한국이 생각나는 장위안과 줄리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이들은, 한국의 매력으로 〈비정상회담〉의 세 한국인 MC인 전현무, 유세윤, 성시경을 줄여 부르는 애칭인 '전유성'이라고 답한다.

장위안 | '전통'과 '유행'을 동시에 품고 있는 '나라(城)'라는 뜻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커다란 발전을 이룬 나라도 없죠.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면서도, 한국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고수하고 있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커다란 발전을 이룬 나라가 드물다는 점을 봐도 잘 알 수 있죠.

줄리안 | 저도 위안 형 말에 동의해요. 한국은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활기가 넘치죠. 놀 때는 즐겁게 놀고, 일을 할 때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것이 한국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한국의 친구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며 마음을 다잡곤 해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가끔은 가족들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인터넷 등이 잘 되어있어 가족들과 연락도 자주 할 수 있고 벨기에에서 즐겨 먹던 음식과 음식점들이 한국에 많이 생겨서 친구들과 자주 찾고 있어요.

장위안 | 저 또한 가족들과 자주 통화도 하고, 부모님께서도 자주 한국을 찾으시지만 중국 음식이 생각날 때면 대림동이나 건국대학교 쪽의 중국 음식점을 찾아 그리움을 달래곤 해요. 그래도 김치찌개 같은 음식이 생각나는 걸 보면 한국 사람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맞지 않아 꽤 고생했거든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기 때문인지 이제는 한국에 있는 것이 편해요. 한국에서의 꿈도 생겼어요. 중국에서도 뉴스를 진행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한국어로 유창하게 한국의 뉴스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줄리안 | 정말 조만간 TV를 틀면 위안 형이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음악 감독과 클럽 DJ 등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계속 하면서 내가 만든 음악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중 하나가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인데, 그 노래의 가사처럼 모두가 편견과 갈등 없이 노래와 춤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어요. 🎵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나만의 한국생활 노하우!

하나. 한국 친구를 만드세요!

한국의 친구들은 정이 많고 친절해요. 또한 현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간혹 한국에 와서 자국민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곤 하는데, 한국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하죠. 현지 친구를 사귀면 한국에 금세 녹아들 수 있어요. 한국 친구들은 어색한 한국어를 교정해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줄 거예요.

둘. 드라마, K-pop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한류 열풍을 타고 드라마와 K-pop을 보고 한국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의 단면을 보기에는 좋지만 이것이 한국의 전부, 혹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많이 당황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나 문화, 혹은 실제 한국생활을 다룬 유튜브 채널 등을 미리 공부하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셋. 한국어 무료 강의, 정부지원 세미나를 이용하세요!

동아리나 한국어 무료강의, 정부지원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체계적이고 올바른 한국말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나 예절 등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만나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즐겁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한국어가 늘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 옆 복도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현장.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대신 모두 소리높여 오늘 배우는 문장을 따라한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이 하나 더 늘었다며 웃는 이들의 얼굴이 밝다.

글 안채린 사진 서찬우

서로 도우며 어려운 개념도 척척!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업이 있는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 가득 적힌 한글이 제일 먼저 반긴다. 오늘은 한글의 '사동사'에 대해 배우는 날.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수강생들의 눈빛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대로 반짝인다.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할 때 쓰이는 동사를 사동사라고 해요.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다’, 정보를 ‘알리다’ 등이 사동사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 몇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알려’ 줄게요!”

사동사의 개념을 배운 후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온 프린트물을 통해 문제를 풀면서도 시종일관 즐거운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한글을 배우는 친구들과 수업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모르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모두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맡고 있는 하은경 선생님은 힘주어 말한다.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한국어능력 향상의 비결이죠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언제나 먼저 도착해 복습과 연습을 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모르는 표현은 바로 질문하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에 선생님 또한 가르침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개념을 알려주고 직접 문제풀이 프린트를 제작하고 낱말카드를 만드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때문에 수강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느는 것을 직접 느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다.

사동사에 대한 개념을 배운 후에는 직접 연습을 하며 사용법을 익힐 시간. 한국어를 배우는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자던 아이도 어느새 눈을 뜨고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기라도 하는 듯이 엄마의 한국어에 귀를 기울인다. 한국으로 시집을 온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다는 도티 소안(베트남, 21) 씨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시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할 날을 꿈꾸며 한국어 공부에 여념이 없다.

각자의 희망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며 연필로 꼭꼭 눌러쓰며 곧 자유롭게 한국어를 쓸 날을 기다리는 이들의 희망은 가을의 하늘처럼 맑고 높이 부풀어 오른다. ☀

이날 수업의 한국어 배우기

사동사(Causative Verb)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Verb that illustrate tha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does not perform the action itself but causes other to do so.

● 먹다 - 먹이다 (Eat - Feed)

예)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요.

Ex) Mother is feeding milk to the baby.

● 보다 - 보이다 (See - Show)

예) 여행가서 찍은 사진 좀 보여주세요.

Ex) Show me the photographs you took during travel.

● 앉다 - 앉히다 (Sit - Place)

예) 아빠가 아이를 의자에 앉혀요.

Ex) Father place his baby in a chair.

다른 사동사 표현 (Another Expression of Causative Verb)

신기다(Put on), 벗기다(Take off), 재우다(Put to sleep), 낮추다(Lower), 깨우다(Awaken)

한복의 아름다움, 이젠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2003년에 한국에 와 현재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조나영 씨는 한복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다. 결혼식 때와 두 아이의 돌잔치 때 입어본 경험이 있으나, 그마저도 모두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입은 기억이 있어 한복은 입기가 어렵고 복잡한 옷으로만 느껴졌다. 이번 추석을 맞아 혼자 한복 입기에 도전한 그녀, 과연 완벽하게 한복을 입을 수 있을까?



좀 더 연습하세요! ★★★★★

조나영 씨의 도전 “한복을 입을 때에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방법도 복잡해서 조금 헛갈렸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하지만, 다 입고 보니 혼자서 입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은 없네요! 저고리의 웃고름도 처음에는 매는 방법이 어려워보였는데, 몇 번 연습해보니 이제는 혼자서도 웃고름을 맬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옷만 입는 것이 아니네요!

가지런히 놓여 있는 한복을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생각보다 입어야 할 것도 많고, 생소하게 생긴 옷은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천천히 살피다가 아이의 돌잔치 때 한복을 입었던 기억을 더듬어 속바지와 버선, 속치마 순으로 챙겨입는다. 한복을 입을 때는 그저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한복의 맵시가 살도록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더욱 몸가짐이 조심스럽다. 한국의 옛 조상들은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옷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였다고 생각하니 한복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은은한 색상과 부드러운 곡선, 부드러운 감촉까지 나영 씨는 이내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한국 며느리 다 됐죠?

겉치마 자락이 왼쪽으로 오도록 하여 치마까지 입은 후에는 저고리를 입는다. 한복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옷이기 때문에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이 있다. 또한 몸 전체를 감싸주기 때문에 입었을 때의 맵시가 더욱 아름답다. 중국에서도 전통의상인 ‘치파오’가 있지만 한복과는 그 매력이 사뭇 다르다.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화려한 색깔의 치파오도 예쁘지만 몸 전체를 감싸주고 은은한 매력의 한복은 조나영 씨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겉치마까지 입는 것은 완벽하게 성공했는데, 저고리의 웃고름을 매는 부분에서 멈춰하고 마는 나영 씨. 과연 완벽하게 한복을 입을 수 있을까? 🍁

결혼이주여성 조나영 씨의 한복 입기 도전



● **한복 빌려 입기** 평소에 잘 입지 않는 한복을 특별한 날에 입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복을 대여해 입으면 자신의 사이즈와 용도에 맞는 한복을 원하는 시간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입을 수 있다. 인터넷 등의 한복 대여점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한복을 대여할 수 있다.



Real geeks, We are SEWORKS

Mobile Security Specialist! Real Geeks

SEWORKS is a global mobile security specialist, becoming your “Real Geeks, Secure your mobile business and make dreams into reality.”

국경 없는 기술력으로 지키는 모바일 안전

모바일 보안 업체 에스이웍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갈색 머리에 벽안(碧眼)의 외국인, 보우디 베이커(Bodey Baker, 호주) 씨이다.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좋아하는 그에게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이었다. 스타트업 회사 에스이웍스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그의 한국 기업 입성기.

초국적 가치로 만난 한국

명함을 내미는 손이 익숙한 그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된 지 1년 반이 된 엔지니어, 보우디 베이커 씨이다.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호주에서 살던 그는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외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꿈꾸게 됐다.

그러던 중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무작정 한국행을 결정했다. 한국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하는 방법을 공부하며 본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 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러던 중 해커들이 만든 모바일 보안업체인 에스이웍스를 만나게 되었고 모바일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됐다.

“일하고 싶은 회사를 찾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고, 또 회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스이웍스였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라 틀에 박힌 일을 반복하지 않고, 제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다가왔죠.”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발견하는 새로운 꿈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게 낯선 한국에서 불편한 점이 왜 없을까. 그럼에도 일에 대한 열정과 좋은 사람들은 그가 한국을 더욱 사랑하도록 만들어 준다. 개발자의 업무 특성 상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만,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의 배려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나 공과금을 손쉽게 납부하는 방법 등 일상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영어로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룹으로 일을 할 때에는 한국어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낯선 저를 위해서 모두가 나서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한국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모두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현재 에스이웍스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있는 팔로알토로 본사를 옮기고 글로벌 모바일 보안업체로서 도약하고 있다.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베이커 씨도 많은 이들과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없는 일을 통해서 더 커다란 세계를 만나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베이커 씨의 한국생활은 ‘문제없음’이다. ☺



Know-how on successful employment

● 적극적으로 구애(?)하세요!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자신과 맞는 회사를 찾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검색과 자기개발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자신을 바꾼 후에는, 회사에 자신을 끊임없이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 Assertively try to win the hearts of the employer!

Finding a job in Korea was much more difficult that I had imagined. It is advisable to find the employer that concords well with you and demonstrate the aspects of yourself that the employer wishes to see. After having found such company through continuous search and even modified yourself to be suitable for the ideal image of the staff that the company has, you will need to ceaselessly appeal yourself to the company.

● 나만의 장점을 무기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자리를 구할 때, 한국인 경쟁자들이 많았죠. 그들과 비교해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결과물을 산출한 것이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되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 With your unique strengths as your weapon; the resume

As I was looking to work as a software developer, I thought it would be good to assertively demonstrate what I am capable of. I produced results through projects I have set on my own, which became my portfolio. It is necessary to find the means of maximizing your strengths in a diverse range of methods.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글로벌 인재, 이곳에서 자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많은 이들의 협력과 관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주는 것, 이것이 인천한누리학교가 꿈꾸는 진정한 학교의 모습이다.

사랑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의 기합소리가 학교에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오늘은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인 태권도 수업이 있는 날. 신체와 육체를 한 번에 단련할 수 있다는 이유 외에도,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 학년이 모여 태권도를 배운다.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이 한국어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한 태권도를 비롯하

여 합창, 오카리나 등 다양한 활동은 인천한누리학교가 사랑하는 특성화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인천한누리학교(교장 박형식)는 전국 최초로 초·중·고가 통합되어있는 기숙형 다문화학교로 2013년 3월 1일에 개교하였다. ‘다문화교육으로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하여 교과 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

을 수 있는 공립학교이다. 현재는 20개 국에서 온 126명의 학생들이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디딤돌 반’을 운영하여 교과 과정 외에도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추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끼리 서로 돕고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입이 열린다?

인천한누리학교는 전국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기숙사를 운영하여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모두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란다. 기숙사의 문을 열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살핌의 사각지대를 없애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숙사에는 언제든지 찾고 고민을 말 할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들을 배치하여 상담의 벽을 낮추고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심리치료와 일반교과를 병행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사랑을 주는 만큼 자란다. 청소년기에 받은 많은 사랑과 관심은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자양분이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간다. 학교가 두렵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사랑과 관심을 받고 큰 아이들은 미래에 한국에 대한 따뜻함을 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자랄 것이다. 🌍



“한글도 열심히 배워요”

저는 이라크에서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어요. 인천한누리학교에는 올해 3월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저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 편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도와주며 즐겁게 지내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아직은 한국어가 서툴어 영어 수업 같은 익숙한 과목이 수월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한국어도 얼른 배워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티마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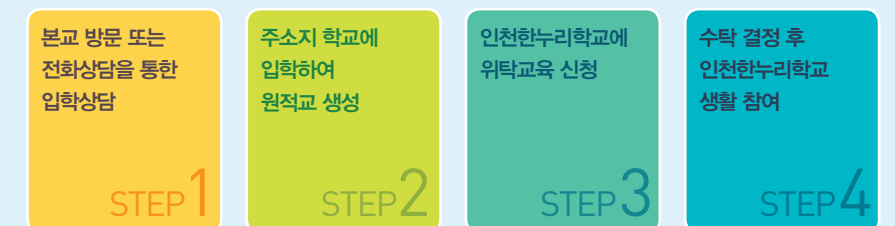
입학 자격

-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학교 특성

- 학력인정: 초·중·고 학력 인정 · 주민등록 등본
-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50% + 특성화 교육과정 50%
- 교육방법: 직접입학 ▶ 졸업 또는 원적교 입학 ▶ 위탁교육
- 기숙사 운영: 입소자격 (상담 후 기숙사 생활 가능한 자) 입퇴소일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입학 안내



문의 032-442-2102 주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교전로 215 (논현동 640-2) 인천한누리학교
홈페이지 www.hannuri.icesc.kr

쿵덕쿵덕~ 송편도 빚고! 가족 화합도 다지고!



‘밥 위에 떡’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입맛에 척하고 달라붙는 ‘떡’은 곡물이 귀하던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날 의미를 더하는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다. 추석을 앞두고 비오리카 씨(물도바)와 두 아들이 함께 속이 꽉 찬 송편을 빚으며 가족의 화합을 다진 것처럼 말이다.

한국의 성묘문화, 물도바에도 있어요

터키의 한식당에서 근무하던 남편, 박재영 씨를 만나 국제결혼을 한 비오리카 씨. 이들 부부는 해외에서 큰 아들 대한이와 요한이를 낳고 기르다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2006년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 한국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재료와 요리법이 낯선 한식요리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다고. 지역다문화센터와 그녀가 다니던 성당에서 진행되는 요리교실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실력을 키운 결과, 이제는 아이들이 주문하는 어떤 음식도 똑딱 만들어 한식 전문가인 남편에게도 인정받는 정도가 되었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물도바는 한국 문화와 비슷한 점이 참 많다. 한국만큼 격식을 차리지는 않지만 특정한 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조상에게 햇곡식과 과일, 전통 음식을 대접하는 성묘문화가 있다.

“한국에서 추석날 ‘송편’을 먹는 것처럼 물도바에서도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옥수수가루로 만든 반죽과 치즈를 버무려 먹는 ‘마말리’, 얇고 넓게 편 밀가루 반죽 안에 사과, 감자, 계란, 호박 등의 과일과 야채 소를 넣고 기름에 구워 만드는 ‘블레친테’ 등인데, 쫄쫄쫄쫄한 식감이 떡이랑 비슷해요. 아이들이 좋아해 집에서도 종종 해먹는 음식이죠.”

평범함은 거부한다! 개성만점 송편시대

송편 만들기의 첫 순서는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찰기 있게 반죽을 하는 과정으로 힘이 센 대한민국이 나섰다. 평소에도 바쁜 엄마를 위해 비빔밥을 만들어 대접할 정도로 속이 깊고 손맛까지 겸비한 아이라고.

“한국에서 여러 번 명절을 맛았지만 직접 송편을 빚어본 것은 한 번 뿐이거든요. 걱정이 돼서 어젯밤 미리 남편에게 노하우를 전수 받았는데도 반죽은 힘드네요. 우리 큰 아들이 역시 최고죠? 그리고 어제 남편에게 들었는데, 송편 속에 넣는 소와 모양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음식 한 가지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반죽이 완성되면 이번에는 둘째 요한이 차례! 반죽을 오물조물 손으로 굴려 새알심처럼 만든 뒤 소를 넣고 매만지기를 여러 차례, 한입에 꼭 들어갈만한 크기로 개성 넘치는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엄마를 웃게 만들었다.

“엄마, 그냥 만두 모양은 심심해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 별 모양으로 만들래요!”

“요한이가 빚은 송편도 예쁘고, 대한이 송편은 두 가지 색이 섞여 있어서 더 예쁘네. 이렇게 송편을 잘 빚으면 나중에 예쁜 딸을 낳는다고 말하곤 했었는데~.”

웅기중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모양의 송편을 빚어낸 모자. 손수 만들었지만 맛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한 이들 가족의 송편 맛은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 🍴





비오리카 (몰도바, 38세)

별점 ★★★★★★

늘 녹색 송편과 하얀 송편만 봤었는데, 딸기와 단호박 가루를 반죽에 넣으니 색이 고운 오색송편이 되네요! 생각보다 만드는 법이 간편해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I'd always seen white or green songpyeon. I only found out now that adding strawberry or pumpkin powder to the rice powder mix is the secret behind making pretty five-color songpyeon! It's surprisingly easy to make, so it'll be fun to make at home.



박대한 (한국, 16세)

별점 ★★★★★★

제가 디저트로 즐겨먹는 케이크나 사과파이만큼 달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대신 송편 속에 있는 참깨와 흑미가루가 고소한 맛과 향이 나서 좋았고, 호두 알갱이를 씹는 재미도 있었어요.

I wish it had been sweeter, like other desserts such as cake or apple pie. Still, the nutty flavor of the sesame seeds and black rice inside the songpyeon was nice, and the bits of walnut were fun to nibble on.



박요한 (한국, 13세)

별점 ★★★★★★

쫄깃쫄깃한 떡을 좋아해서 떡볶이와 떡국을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쌀이 재료가 되어 떡을 만드는 줄은 잘 몰랐어요. 다음 번에 송편을 만들게 되면 모양도 더 이쁘게 빚어볼래요.

I like the chewy and sticky texture of rice cake, so naturally I like topokki and tteokguk. I didn't know they used rice to make rice cake until now. Next time I hope I can make them look prettier.

추석날엔 속 짝 찬 '송편'을!

송편(松餅)은 솔잎을 켜켜이 깔고 찌기에 붙은 이름이다. 쌀가루를 익반죽해 콩, 밤, 깨, 햇녹두, 계피가루 등의 다양한 소를 넣은 다음 반달 모양으로 빚어 시루에 솔잎을 켜켜이 깔고 찌낸다. 솔잎의 은은한 향이 떡에 배어들고, 솔잎 자국이 새겨져 있어 오감으로 음식을 즐기는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솔잎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송편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추석날차례상에 햅쌀로 만든 송편을 올려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통이 있다.

이렇게 깊은 뜻이? 한국의 전통떡

한국인의 유별난 떡 사랑. 하지만 전통떡마다 담긴 다른 의미를 알아두면 배려 깊은 마음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백설기, 무지개떡 | 아이 백일, 돌잔치날



백설기는 아이의 장수를 뜻하는 떡이다. '백(白)'과 '백(百)'의 발음이 같은데서 유래한 것인데, 아이가 100세까지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하얀 떡이 들어간 '떡국'을 먹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한편 백일과 돌잔치날, 소원을 이루고, 복과 재물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무지개떡을 아이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오색송편 | 추석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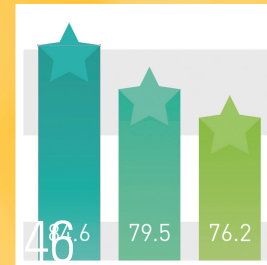


오색송편의 다섯 가지색(오방색)은 '만물의 조화'와 조화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석 전날,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송편을 빚고 먹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송편의 속을 채운 것과 비운 것에 따라서도 의미가 다른데, 속이 든 송편의 경우 자녀들이 짝 찬 송편처럼 여문 사람이 되라는 의미와, 다양한 소가 하나로 뭉쳐진 모습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지는 뜻을 담고 있다. 한편 속을 비운 송편에는 떡이 고물을 감싸듯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뜻이 담겨 있다.

시루떡 | 이삿날, 고사 지내는 날



예부터 팔의 붉은 색에는 재앙을 물리쳐 복을 부르는 기운이 있다고 전해진다. 집을 옮기는 등 환경이 바뀌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안 좋은 일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루떡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다만 붉은색의 수수나 팥이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어 조상의 제사상에는 붉은 시루떡을 올리지 않는다.



Immigration Now

2014 AUTUMN

정책특집 | '한국살이'의 어려움, 이렇게 해결하세요!

출입국 25시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동네 보물탐방 | 부산의 '갈매길'을 걷다

다정다감 그대 | 친절한 서비스, 넉넉한 마음!

전문가 기고 | 외국인 관광객과 출입국 관리

출입국 NEWS | 3분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소식

출입국 Q&A | 독자가 보낸 편지

‘한국살이’의 어려움, 이렇게 해결하세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75만여 명. 이들 모두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들의 곁에 다양한 체류 지원과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며 해결사로 나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있어 든든하다. 상황에 따라 알아두면 좋을 맞춤별 정책을 소개한다.

Are you having difficulty living in Korea? Try these tips!

1.75 million foreigners are currently staying in Korea, and it is no secret that they are in need of help to emerge themselves successfully into Korean society. Thankfully though,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is one organization they can count on when it comes down to immigrant support and integration.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take a look at some of KIS' tips on a case-by-case basis.



CASE1

말이 통하지 않아 갈등이 생겼어요!

I am in a conflict with others due to the language barrier!

TIP

외국어전용 상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세요!

Call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also known as 1345)!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또는 결혼이민자가족 내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생기는 오해와 생활의 불편함이 있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해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8년 3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출입국 및 체류, 국적 등의 민원상담을 영어, 중국어 외 20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체류, 국적, 투자, 비자업무 등)뿐만 아니라 체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민원상담을 외국인에게 친숙한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걸려온 상담전화는 약 235만 건으로 정부 대표 상담기관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의 213만 건보다 많습니다. 다국어 전용 안내센터로서 체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If you are facing misunderstanding and discomfort caused by language barriers between you and your employer, colleague or family, call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and ask for their help. Since March, 2008,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offered immigration consulting services in 20 different languages through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You can choose the language you prefer to be served and ask them all sorts of questions on immigration-related-matters such as stay, nationality, investment, visa, and day-to-day problems.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서비스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어(방글라데시), 우루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필리핀), 아랍어, 싱할리어(스리랑카)

• Note) Language Services Currently Available at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Russian, Vietnamese, Thai, Mongolian, Indonesian, French, Bangali, Urdu, Nepalese, Khmer, Burmese, German, Spanish, Tagalog, Arabic, Sinhala

어떻게 이용하나요?

☎ 국번없이 **1345**, 해외 이용 시 **82-2-6908-1345~6**

📠 팩스 **02-2650-4550**

- 주간(09:00~18:00)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0개 언어로 안내 가능
- 야간(18:00~22:00)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3개 언어로 안내 가능

How to Reach the Center

☎ Please dial **1345** without area codes.

If you are calling outside of Korea, please dial **82-2-6908-1345~6**

📠 You can also fax your inquiry to the Center **02-2650-4550**

- Services are available from Monday to Friday between 9:00 a.m. to 18:00 p.m. in 20 different languages.
- Night-time services are also available from Monday to Friday between 18:00 p.m. to 22:00 p.m. in 3 languages; Korean, English and Chinese.



CASE2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Systematically!

TIP

내게 필요한 사회통합교육을 신청하세요!

Apply for the appropriate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 that fits my needs!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회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과 체류 외국인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영주 또는 귀화 희망자 등 정책 대상과 상황에 따라 세분화한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운영해 이민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n order for people with various nationalities to live in harmony, a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this end, the simultaneous attention and effort of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re needed. The Ministry of Justice is building a foothold for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by operating more spec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the policy target groups and their circumstances to attrac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mmigrants.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예비) 국제결혼을 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결혼이민사증 발급 절차 등 안내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합법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법, 초청, 영주, 귀화 등 안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함양

- **International Marriage Guidance Program**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of F-6 visa issuance for the Korean nationals with foreign spouse
- **Initial Adjustment Program for Immigrants** Information on basic laws, sponsorship,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for all the registered foreigners legally staying in Korea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Social integration program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immigrants on Korean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어떻게 이용하나요?

-  사회통합교육 전용 사이트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세요.
- 회원가입 후, 교육참여 신청이 가능!


How to Reach the Center

-  Go to www.socinet.go.kr.
-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submit an application for the program.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s)'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지식경제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투자자, 국내 외국인 고용인 등 누구나 온라인 민원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체류, 국적, 귀화, 고용지원, 투자관련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공동으로 신고 가능한 통합고용변동신고도 '하이코리아'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It is very inconvenient and tough for foreigners to visit each government organization to submit his/her petition or inquiry. Collecting information on investment, employment, residency, and daily living tips is also very difficult. If you are currently facing one of the difficulties that are just mentioned, you should check out our HiKorea website at www.hikorea.go.kr, also known as the "e-Government for Foreigners". The website was coordinated effort of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yone, including foreign investor, employee, and employer, is able to use online immigration services through the website and find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entry/departure, stay, nationality, naturalization, employment support, investment instruction and others. The employment change report of foreign workers can be done at one place in one go either at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 by HiKorea website.


- **포털 서비스** 입출국 및 사증, 체류자격 관련 안내,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근로 관련 사항, 투자 정보와 투자 상담관련 정보, 체류 생활정보 등
- **전자민원 서비스** 법무부(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유학생 기간제 취업 허가·신고 등)와 고용노동부(통합고용변동신고 등) 민원 온라인 신청 가능

- **Portal Services** entry, departure, visa, status of stay, employment permit system, investment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tips for everyday life, alien registration expiry date check, employment eligibility status check, babysitter data check, etc.
- **Online Immigration Services** extension of period of stay, change of work place, part-time work permit or re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employment change report, passport change report, etc.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인터넷 주소 www.hikorea.go.kr에 접속하세요!
- 포털안내 서비스(24시간), 전자민원 신청(평일 07:00~22:00) 이용가능

How to Reach the Center

-  Go to www.hikorea.go.kr
- You can use portal information service (24hours) and E-Application (07:00~22:00 weekdays)

체류 외국인이 각종 민원 신청을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관청을 찾아다니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투자, 고용, 거주, 생활편의 등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일도 쉽지 않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외

안전한 부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슈퍼맨들



대한민국의 교역규모는 세계 10위권. 그런데 교역 물동량의 상당부분이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부산항을 들고나는 선박의 수도 엄청나다. 게다가 부산은 관광자원도 풍부해 한국-일본 간 정기노선 이외에도 수시로 크루즈선박이 입항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다. 철저한 선박심사와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격조 있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슈퍼맨'들의 눈코 뜰 새 없는 25시를 들여다본다.

AM 10:00



정(情)이 넘치는 부산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살다보니 〈共ZONE〉 일일특파원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도 생기네요. 저는 중국 단둥에서 태어난 동포인데 남편을 만나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이라 긴장도 했었지만 이제는 사람 사는 정(情)이 넘치는 부산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남편은 성격 좋고 속이 깊어서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 없을 정도인데, 그런 남편이 있기에 부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화끈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정서가 남다른 부산에서 열린 마음, 포용하는 자세로 출입국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AM 11:00



바다는 넓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바쁘다

여러분은 부산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언덕에 빼곡히 들어찬 집들과 선박들로 가득한 항만, 한마디로 부산은 복잡한 도시입니다. 한국의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물동량의 상당부분이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선박과 선원, 관광객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민원 업무와 사회통합·난민·국적·조사 업무 등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부산세관 옆에 본청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에도 사무소

일일 특파원

김호영 씨(중국 동포)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도시 부산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共ZONE〉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신항 분소가 있고, 다대포항과 감천항을 관할하는 감천출장소도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1호선 중앙역(14번 출구)과 부산역(2번 출구) 사이에 있는 대한항공빌딩 1, 2층에는 종합민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정희정 총무팀장님께서 “인력이 분산되면 기관운영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하루 평균 140척(신항 70척, 감천항 20척)에 이르는 출·입항 선박과 3천 명이 넘는 선원, 국제여객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출입국관리 업무처리와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해줍니다.

PM 13:30

해일처럼 밀려드는 여객 심사는 긴장의 연속

이번에는 여객심사팀 사무소가 있는 국제여객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의 오사카,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대마도를 연결하는 4개 정기노선을 통해 하루 6~7천 명이 출·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해일처럼 밀려드는 승객들로 출입국심사대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긴장의 연속인 담당직원들은 녹초가 될 지경입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크루즈선박은 영도에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입항하는데 편당 2천 명 이상 되는 승객들의 빠른 입국을 위해 전담팀이 해당 크루즈선박에 동승하여 운항 중에 심사를 한 뒤 ‘관광상륙허가’를 한다고 합니다. 짧은 일정에 시간이 귀한 관광객들이 부산 도착 즉시 하선하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는 크루즈승객 7명의 입국이 불허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봉규 팀장님께 여쭙봤더니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국내에 불법체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은 제주도와 달리 전국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항 전에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한 승객을 철저히 가려낸다”고 답변하십니다. 친절함 미소와 함께 날카롭고 예리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외유내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다의 관문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선박심사 업무는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긴장하고 있는 귀화 면접시험 대기자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다.

PM 15:00

민원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산, 경남 김해·양산·밀양시를 관할하는 부산사무소는 등록의 국민이 약 6만 명이나 되다보니 민원업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관리과 총무팀과 심사와 선박팀, 조사과만 있습니다. 각종 증명발급, 체류, 사증, 국적·난민, 사회통합과 관련한 민원업무는 종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부서장님께서



“행복의 나비효과를 아시나요?”

손흥기 소장님께서 “진정한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행복한 직장의 나비효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할 때 사기도 오르고, 그래야 완벽한 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격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민원인의 만족은 국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이 아름다운 소장님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가슴에서 피어난 행복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타고 온 세계로 퍼져 지구촌 식구 모두가 함께 웃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All types of travel you are dreaming of are possible in here! **BUSAN**

부산은 자연과 문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지난 6월 국제신문 기사에는 부산의 자연해안선 길이가 207km라고 나와 있다. 항구로 연상되는 부산을 둘러싼 자연해안선은 부산의 또 다른 보물이다. 아무튼 부산은 복 받은 도시다. 바다 말고도 생명의 젖줄 같은 강과 산, 편안함을 주는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 이 도시 안에 있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항만까지 있으니 삶을 즐기기에 이만한 여건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부산의 자연해안선을 연결한 갈맷길 264km

264km of Galmaetgil that connects the natural coastlines of Busan

Busan is filled with joy in October. International Busan Film Festival is held and exciting festivals commence at the Jagalchi Market, one of the most famous spots in Busan. There is a path that connects all the natural coastal lines, which will allow the visitors to discover all the hidden treasures of Busan. It is the 'Galmaetgil', a name derived by combining 'Galmaegi (seagull)', a symbol of coastal areas, and 'gil (path)'. There are a total of 9 courses that begin at Gijang-gu and round the Gadeokdo Island along the coastal shores, and proceeds north along the Nakdong River to the Municipal Hall of Gijang-gun by climbing over the Geumjeong Mountain. It is a foot path with total length of 264km. As you walk along the Galmaetgil,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an extensive range of beautiful beaches, mud flats, forests, reed fields and lakes that are comparable to the beauty of Olle Path of Jeju.

파도가 닿을 정도로 바다 가까이 있는 해동용궁사

Haedongyonggungsa Temple situated right by the ocean

The starting point of the Course 1 of the Galmaetgil is the Imryang Beach at the northern most waters of Busan. Haedongyonggungsa Temple is one of the most popular destinations along the Course 1. Although one generally has the preconception that Buddhist temples are in the mountainous regions, Haedongyonggungsa Temple is situated so close to the ocean that it seems waves will be able to reach the grounds of the Temple. As you walk down the 108 steps after having passed through the forest path lined with status of the gods of the 12 earthly branches, the scene containing tranquil surroundings of the temple situated on top of rocks at the seashore comes into the view. Just seeing the wonderful harmony between the nature and the Temple is enough to ease and comfort your mind. There is a legend that one wish will definitely be realized if you pray at the Haedongyonggungsa Temple.





역사의 기억, 유엔기념공원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with the grief stricken memories of the past

UN Memorial Cemetery with buried remains of the foreign soldiers perished in action during the Korean War is a venue you must visit. The Cemetery is composed of the burial ground, memorial hall, commemorative hall and memorial tower. A poem by Lee, Hae In, a nun, dedicated for the buried is inscribed on the wall next to the Memorial tomb plaque with engravings of the names of the deceased; "We engrave your names in our home country with gratitude." 'Daunt Waterway', in which colored carps thrive, flows underneath the cemetery ground. J.P. Daunt left his remains in Korea and the name 'Daunt Waterway' was given to pay tribute to the departed soul of the youngest soldier buried at the Cemetery. In addition, the Canadian Commemoration Statue that looks upon the Cemetery ground throughout the year contains extraordinary significance in that it was designed by a Korean War veteran, Vincent R, Courtenay, and sculptured by a Korean artist, Yoo. Young Moon.

위대한 자연, 태종대의 웅장한 아름다움

Greatness of nature, the majestic beauty of the Taejongdae

Yeongdo Bridge that connects the urban center of Busan with Yeongdo Island is one of the most sought after tourist destination of Busan. Constructed in 1934, the Yeongdo Bridge became a celebrated structure of Busan because of its function of raising portion of the bridge to allow the passage of ships through the bridge. However, this function was ceased and a new bridge was constructed next to the existing bridge in 1966. The historical value of the Yeongdo Bridge faced with demolition was recognized and was reassembled following dismantling of the bridge. The reassembled Yeongdo Bridge gives performance of raising the portion of the bridge at noon every day, thereby sustaining the renown of the past. The magnificent view of the Yeongdo portion of the Galmaetgil begins from the Rainbow Bridge of the Jeolyeong Coastline Trail on the southwestern seashore. The Trail is highlighted by approximately 500m of the path that contains Sky Observatory, Daemado Island Observatory and Jeolyeong Observatory beyond the suspension footbridge. With quite a few numbers of fishers along the trail makes the trail more enjoyable.

다리의 도시

City of Bridge

Busan is also described as the 'City of Bridges'. Busan has perpetual traffic issues because of its geographic features with many mountains. The countless number of cargo trucks to transport the cargos arriving at the container harbors aggravated the traffic situation in Busan. Accordingly, the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decided to construct 7 marine bridges, namely, Geoga, Gadeok, Sinho, Eulsukdo, Namhang Harbor, Busanhang Harbor and Gwangan Bridges, which completed the 52km of the shortest coastal beltway network that links Geoje-Busan-Ulsan in Gyeongnam Province.

You can reach the Songdo Beach by crossing the Namhang Harbor Bridge from Yeongdo. Prior to the opening of the





Namhang Harbor, it took a lot of time to reach the Songdo Beach by having to pass through the urban center and Jagalchi Market, enabling much more convenient and easier access to the Songdo Beach. The portion of the Galmaetgil at Songdo extending approximately 1.2km from the Songdo Beach to Amnam Park, which has the most aesthetic scenery among all the sectors of the Galmaetgil. This portion of the path is also referred to as the 'Bollegil' offers peerless scenery of the coastline viewed from the iron stairways climbing up a sharp cliff and from the Observatory. Composite maritime resort facility is being planned at the Songdo Beach in order to recapture its former reputation.

Among the 7 bridges for which the nickname of "Rainbow" has been bestowed, it is the Gwangan Bridge, the longest double-decked bridge in Korea with the total length of 7.42km. Gwangan Bridge that crosses the ocean in front of the Gwanganri Beach, the 'street of youth', produces wonderful night scene with splendid display of LED lighting. It has become a leading landmark of Busan for its role. 🌈



Special Memory, Dynamic Busan!

"Although there are many harbor cities in Korea, but Busan gives definitively different and unique feeling. You can actually feel and experience the characteristic sentiments that are highly unique to Busan." Emma Nicole, a native English speaker teaching English described Busan as a 'dynamic city'.

Emma Nicole [from England]



The Galmaetgil, Course 2 Map 18.3km(평균 6시간 소요)



Do you want to travel Busan?

부산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부산관광공사 www.bto.or.kr

부산시티투어버스 www.citytourbusan.com

갈맷길 gmap.busan.go.kr

해동용궁사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16-3번지, ☎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UN기념공원 남구 유엔평화로93(대연동), ☎ 051-625-0625, www.unmck.or.kr

태종대 영도구 전망로 24(동삼동), ☎ 051-405-2004, www.taejongdae.or.kr

송도해수욕장 서구 암남동 155, ☎ 051-240-4000

Fantastic course that will allow the visitors to see, feel and enjoy all about Busan

HOW WOULD IT FEEL LIKE TO VIEW THE CIVILIZATION IN THE MIDST OF PRIMEVAL NATURE?

Galmaetgil Course 2 in Busan is a masterpiece that enables the visitors to experience both the primeval nature and the splendor of urban center simultaneously. It is the Moontan Road, one of the most famous spots in Haeundae that features splendidly quaint beauty especially as the moonlight brightly shines the dark night. As you climb up to the Haewoljeong Pavilion at the Dalmaji Park, you can also have a panoramic view of all the representative tourist attractions of Busan. Viewing the skyscrapers of Haeundae in the midst of the primeval natural setting is sure to impart peculiar and interesting impressions.

'IGIDAE GIL', A DOCUMENTARY-LIKE PATH WITH OUTSTANDING CINEMATIC QUALITY

The coastal scenery that is displayed in front of the visitors as soon as they enter the Igidaegil is indescribably magnificent. Throughout the tracking of the Igidaegil composed of the stairways up the cliff right by the sea, visitors will experience the feeling of embracing the ocean in their bosom. The white waters created by the collision of high waves onto the vertical cliffs with numerous rugged rocks and the cobalt colored ocean create a postcard like scenery.

POINT WHERE THE EAST SEA AND THE SOUTH SEA OF KOREA ENCOUNTER

When you get onto the skywalk with transparent glass floor, you can view the white waters created as the waves collide with the rocks on the seashore below your feet. You can view the Oryukdo (Five/Six Island), the name given to the Island because six hill tops are visible from the east but only 5 hill tops can be seen from the west, clearly from the Skywalk. The end point of the Course No. 2 of the Galmaetgil is where the 'Haeparanggil' that connects Busan to Sokcho in the East Sea coast begins. This is the point that is used for demarcation of East Sea, on the north of here, and the South Sea, on the south.

친절한 서비스, 넉넉한 마음!

민원인 만족 100%를 위해 오늘도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민원인들을 마주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수많은 업무 속 생겨나는 사연의 수만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칭찬의 소리도 늘어난다. 오늘은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문을 두드렸을까?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로 빨라지는 수속!

사고나 교통체증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항에 늦게 도착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촉박하여 비행기를 놓칠 것 같은 불안함에 먼저 오신 분들보다 빨리 입국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원인들에게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자동출입국등록을 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한 번 등록해두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가 이뤄지는 공항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 '친절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원인들을 웃으며 맞이합니다.

박혜진 반장(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합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한국어가 서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복잡한 업무처리와 어려운 용어들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한 결혼이민자여성이 비자문제로 사무소를 찾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나 차근차근히 안내해 드려 무사히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던 그 분을 보며,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진심을 다하면 마음은 통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진선 반장(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인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요

민원인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민원 처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원인들이 편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입국사무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방법이나 해결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민원인들을 돕고, 저희가 그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즐겁게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반장(세종로출입국사무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얼마 전 한 단체여행 가이드가 입국 후 중국 관광객들의 여권과 단체비자를 두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에도 시간이 걸리고 출국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소문하여 직접 해당 여행사에 연락했습니다. 여권과 비자를 잘 전달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불편함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상원 반장(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재심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출입국 관리의 중요성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관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민정책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Immigration policies for building speedy and convenient immigration control to attract more foreign tourists are an active and important economy polices to revitalize domestic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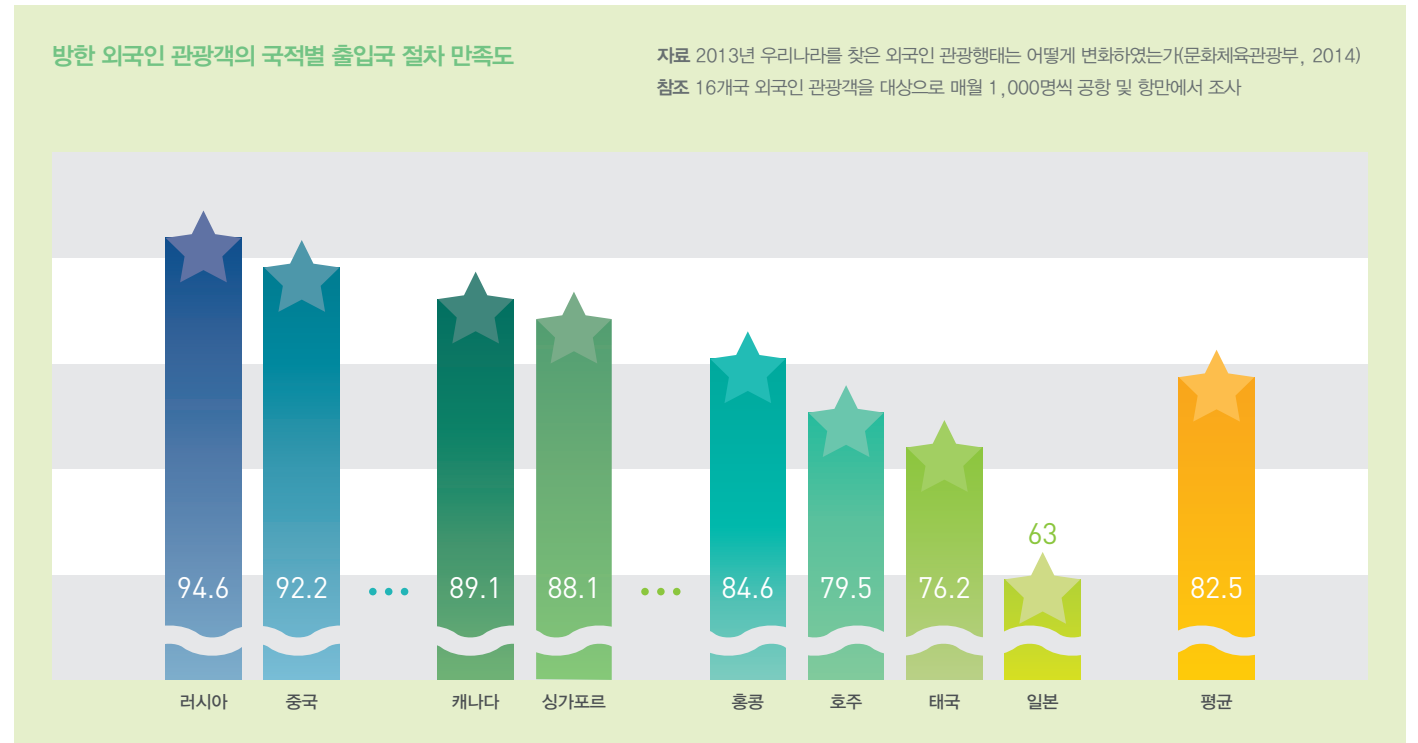
2014년 GDP 직접기여효과 5.7%, 직접고용효과 61.8만 명! 이 숫자는 WTTC(세계관광협회)가 방한 여행객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예측한 것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이라도 불릴 만큼 21세기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외래관광사업은 외래관광객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내수의 증대로 생산과 기업 이익을 증대시킨다. 또한 그 결과로 세액이 증대하고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일으키며,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관계 증진 등의 파급효과도 가져온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출입국 관리정책이 중요한 이민정책으로써 주목 받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제 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17)’의 주요 5개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항목에서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첫 번째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데서 그 중요성을 새삼 알 수 있다.

국가별 경제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감의 주요 변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1996년 이후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태와 2003년 SARS, 이라크전쟁,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심지어 2010년 천안함사건(3.26)과 연평도 포격(11.23) 등으로 인해 남북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관광객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10년간(2004~2013) 대륙별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적으로 2.1배 증가했으며, 숫자는 적지만 아프리카주가 2.4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아시아주(2.3배), 대양주(2.1배), 구주(1.5배), 미주(1.5배) 순이었다. 2013년 기준 방한 여행객 상위 10개국 중, 10년간 여행객 증가비율을 보면, 중국이 6.9배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태국(3.6배), 인도네시아(3.0배), 홍콩(2.6배) 순으로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이 중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무려 58.1%를 기록했다. 한류열풍이 방한 관광객 증가에 가장 큰 몫을 해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두 나라의 경제상황이 외래관광객 증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변수가 된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04년 이후 평균 10.2%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3년 이후에도 고도의 경제성장(7.75%, IMF 예상)과 위안화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GDP의 성장과 엔화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관광객 수도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즉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GDP의 하락과 더불어 엔화의 평가절하로 방한 일본관광객이 줄어들었고, 2008~2009년 사이에는 GDP의 성장과 엔화가치가 회복됨에 따라 2009년까지 일본관광객이 다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2년 아베신조(安倍晋三)가 일본총리로 취임하면서 양적완화를 통하여 엔화약세를 주도한 결과 일본은 저경제성장률을 이루었고 더불어 엔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일본관광객의 증가세는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와 반면 2014년 7월 말의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보이지 않는 손’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관리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이민정책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입국 관리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것이다. 출입국 심사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곳으로, 여기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첫인상이 결정된다. 연간 5천여 만 명의 출입국을 담당하는 이곳은 신속한 출입국 심사와 편리한 절차가 요구되는 곳이다. 관광객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의 노력은 이미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지문, 얼굴인식 등을 통한 신속 편리한 자동 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들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환승관광 목적의 무비자하움, 비자면제협정 체결 대상국가의 확대, 공항만 도착 비자의 발급 확대, 비자신청 대행서비스의 확대 운영 등 보이지 않는 손들이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13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행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문화체육관광부, 2014)”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출입국 절차 만족도(5점 척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는 2013년의 경우 연 평균 4.11점으로 2012년의 4.03점에 비해 0.8점이 높은 수치이다. 전체적으로 ‘만족’ 및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은 82.5%로 2012년 대비 4.6%p 증가하였다. 반면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비율은 불과 2.0%로 2012년 대비 1%p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아쉬운 점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 두 번째로 많이 찾아오는 일본관광객들의 평점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한 번쯤 고심해봐야 할 것 같다. 🇯🇵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곳에서 OK

지난 6월 3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가 법무부와 고용부 중 한 기관만 방문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정부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보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Employment Change Report in One Go

Starting from June 30, the employment change report of foreign workers can be done at one place in one go - either at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the past, the employers who hired foreign workers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or Working Visit (H-2) visa had to report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AWOL of the foreign workers, others changes twice to both Immigration Office and Employment Center.

※ The amendment was selected as the best practice for improvement of government's regulation and received award at Government 3.0 Design Lap Performance Report Competition.

최초 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8월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김영관 선생 외 대한민국에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여식은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유진동 선생의 후손과 1919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제작하고, 한국의 독립

운동 소식을 외국신문에 기고했던 선교사,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이 자리해 자리를 빛냈다. 황교안 장관은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불굴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철저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Descendents of American men of merit for independence obtained Korean Nationality

The Ministry of Justice (headed by Minister Hwang Gyo-ahn) organized a ceremony to grant Korea nationality to 16 descendents of American men of merit for independence, including President Young-Gwan Kim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Liberation Army, who have naturalized through special naturalization scheme. Among them were a descendent of Yoo Jin-dong who was the personal doctor of independence activist Kim Gu, and a descendent of William Linton, a missionary who participated in making the Korean flag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ile report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to foreign newspaper. Minister Hwang of Justice expressed his gratitude for the noble sacrifice and indomitable efforts of the men of merit, and asked the newly naturalized to have strong sense of security and correct view of history following the will of the patriotic martyrs of the past.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추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이 신설된다. 8월 13일 법무부와 새누리당 김화선 의원, 이민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75만여 명(8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사회통합비용’ 증가의 부담, 부처간 이중 지원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내는 체류, 귀화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범칙금 등 발생 수익을 정착 지원에 쓰는 방법이 제안됐다.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Fund’ will be implemented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Fund’ will be implemented to support social settle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On August 13, the Ministry of Justice, Congressman Kim Hoe Seon of Saenuri Party,

academics in immigration field and civic groups gathered at the ‘Public Hearing on the Amendment of Foreigners Treatment Act’ to discuss the issue.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has reached 1.75 million (as of August 1),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is causing various issues such as increase in ‘social integration cost’ and duplicated support programs by different ministries. Focusing on those issues, the public hearing came up with a measure to use the fees related to residence and naturalization of immigrants and fines paid by foreigners as the support fund for settlement of immigrants.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법무부는 9월 3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아시아게임의 개최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황교안 장관은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에볼라 병원균 유입을 방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외국인정책을 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미래의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한편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과 해외 주재관들은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등 현안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Meeting for the heads of immigration offices and immigration consuls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Meeting for the heads of immigration offices and immigration consuls abroad’ at Incheon Airport Aviation Academy. As the preparation for the 2014 Incheon Asian Games was underway, Minister Hwang Gyo-ahn of Justice requested for thorough prevention of the entry of Ebola Virus into Korea. He th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n attitude to see immigration policy from long-term perspective while preparing measures to utilize immigration policy as new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The heads of immigration offices in Korea and Korean immigration consuls abroad exchanged their ideas on current issues such as support for economic revitalization, visa issuance, and residence management through a long discussion.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 개최



지난 8월 28일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9월 1일부터 한·일 출입국 본부 및 인천공항-하네다 공항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의 난민 및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을 토론하는 한편, 한국측은 일본의 입국금지제도에 따라 한국인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노우에 히로시 일본 입국관리국장에게 당부했다.

Korea-Japan Immigration High-level Meeting

‘Korea-Japan High-level meeting for immigration officers’ was held at the main conference room of the Ministry of Justice on August 28. The high-level immigration officers from the two countries agreed on establishing hotline between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the Immigration Bureau of Japan as well as betwee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also asked Director General Hiroshi Inoue of the Immigration Bureau of Japan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Korean nationals from being disadvantaged due to the Entry Ban into Japan.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출입국 Q&A

출입국 Q&A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혹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하시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내실 곳 : zee@theseven.co.kr

Q 신속한 출국심사가 가능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SES)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How can I use Smart Entry Service (SES) which is known as fast immigration inspection?

A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항,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등)를 방문하여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을 마치면 등록 당일에도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17세 국민은 부모와 동반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

If you visit Smart Entry Service registration center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Seoul Station, City Airport Terminal in Samseong-dong and etc.) and register your fingerprints and have your photo taken, the service will be available immediately after such registration.

※ citizens at the age of 14 to 17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ir parents and submit th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Q 한국을 찾은 외국인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제주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I want to visit the Jeju Island with a foreign friend visited Korea. Who is eligible for No-Visa Entry Policy for Foreigners in Transit program?

A 제주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은 제주도로 가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대상이 됩니다. 제주환승관광무비자 입국프로그램은 전담여행사의 관광상품을 이용하여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공항 인근지역과 수도권, 제주도를 패키지 상품으로 연계시켜 총 15일간(내륙체류기간 120시간) 한국에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관람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9월 15일부터 확대 실시됨에 따라 한국 내륙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2시간(3일)에서 120시간(5일)으로 늘어나 대상자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The Chinese foreign passengers who transit through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a third country and Chinese group tourists entering Korea in order to go to Jeju Island are eligible for the program. No-Visa Entry Policy for Foreigners in Transit to Jeju uses tour programs of a tour agency in charge and allows tourists to stay in Korea and travel for 15 days(120hours for staying inland) with Tourism & Transit (B-2) visa through a tour package that includes touring of the area around the airport of entry, the metropolitan area and Jeju Island. In particular, as this policy has been expanded since September 15 to vitalize the 17th Asian Games Incheon and attract foreign tourists, the period of stay has also been extended from the previous 72 hours (3 days) to 120 hours (5 days).

BLUE POST

〈共ZONE〉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Send us your precious opinion so 〈共ZONE〉can become more profitable and various.

다카시 니시노 Takashi Nishino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 일본

여름의 제주도는 늘 아름답다고 말로만 듣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共ZONE〉을 통해서 보게 되니 마음이 땡 돌리는 것 같아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만의 독특한 풍경도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가을호에는 또 어떤 한국의 도시가 소개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夏の濟州島はいつも美しいという話だけ聞いて一度も行っ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このように〈共ZONE〉を通じて見ることで胸がすっきりしました! 濟州出入国管理事務所だけの独特の風景も印象深く見ました。秋号ではどんな韓国の都市が紹介されるのか、もう気になっています!

정호근 Jeong Ho-Geun 전라남도 순천시 자전동 ● 한국

지구촌학교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보고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사람으로 꿈을 펼치고 있는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It was great to read up on The School of Global Sarang. I was especially happy and proud to see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living and having fun among us, as one. Here's to the children, chasing their dreams as proud Koreans!

팜 티 누이 Pham Thi Nui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 베트남

저도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왕하이쉬 씨의 글을 읽고 많이 공감했어요. 중국처럼 베트남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차 대신 많이 이용하거든요. 한국에 와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서 재미있었어요.

Tôi cũng thích đi xe đạp và rất đồng cảm khi đọc những dòng chữ của Hoàng Hải Thuy.

Giống như Trung Quốc, Việt Nam thích sử dụng xe đạp hoặc xe máy thay cho ô tô. Đến Hàn Quốc, thật ngạc nhiên và thú vị khi thấy trên đường cũng có người đi xe đạp.

조이로브 Zoirov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우즈베키스탄

'테마사이트'를 통해 본 템플스테이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연등 만들기는 생각만큼 어려워 보이지 않고,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도 꼭 템플스테이에 도전해 볼래요!

Мен “Матнлар сайти” вебсайтида “Черковда бўлиш” таомини кўришим жуда таъсирли бўлган. Ёритқични тайёрлаш мен ўйлаганчалик мураккаб бўлмаган ва уни тайёрлаш ниҳоятда ажойиб бўлган, чунки у гўшtsiz тайёрланадиган аъло таомлардандир.

앱북 다운 받고, 선물 받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재한외국인을 위해 발간하는 공감매거진 〈共ZONE〉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와 재한외국인의 한국생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앱북을 다운로드 받고, 앱북과 함께 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共ZONE〉앱북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Android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보내실 곳 zee@theseven.co.kr



iOS용



Android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알쏭달쏭 한국살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생기는 오해와 한국생활의 불편함이 있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해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8년 3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출입국 업무뿐만 아니라 체류생활에 필요한 민원상담을 영어, 중국어 외 20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번없이 1345 해외 이용 시 82-2-6908-1345~6

팩스 02-2650-4550

이용가능한 시간

- 주간(09:00~18:00)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0개국어

서비스 가능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벵골어(방글라데시), 우루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필리핀), 아랍어, 싱할리어(스리랑카)

- 야간(18:00~22:00)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3개국어

